조 자 연
대불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 Ja-Yeon

기공식 유감

Regrets on Ground-Breaking Ceremonies

지난 4월 초에 외국관련 연구소의 기공식에 갈 기회가 있었다. 당일 식장에는 연구소 관련 외국인과 국내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 행사는 그동안의 경과, 내외국인들의 축사 그리고 이어진 테이프 커팅 및 발파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식장의 단상에는 건축 관련자로서 시공사 대표가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기공식이 끝날 때까지 건축사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분명히 그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설계하면서 심의, 허가를 위해 동분서주했을 건축사는 제외되어 있었다. 순간 필자는 몹시 서운하고 부끄러웠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데, 오물 뒤집어 쓴 느낌이 이럴까? 우리끼리였다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외국인들 앞에서 적어도 그들의 나라에서는 건축사를 이렇게 박대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그런 기분이 들었나 보다. 그 짧은 순간에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유학 중에 잠시 귀국한 졸업생이 독일 신문을 보여주며, "이 분 덕택에 학교에서 한국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고 했다. 신문에는 독일 한 도시의 공립도서관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설계안과 당선자인 우리나라 건축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 두 면에 걸쳐 심사과정, 당선작 선정, 당선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선자 인터뷰가 사진과 함께 상세히 실려 있었다. 필자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건축가가 큰일을 해냈음에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났다.

요즘 몇 몇 신문을 통해 건축에 대한 특집기사를 접하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건축 관련 사진과 기사에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설계자가 누군지 명기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낳아준 엄마에 대한 언급 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격이라면 너무 비약하는 걸까? 신문기사 작성의 기본이 육하원칙임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건축에 관한 기사에서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빠진 기사를 쓰는 신문기자의 무신경만 탓할 일일까? 그 똑똑한 기자들이 과연 잊고 빼먹은 걸까? 아니면 언론사 제작방침이거나 데스크가 쓰지 말라고 강요했을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건축물에 관한 기사에 설계자가 누

군지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관습적으로 설계자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은 나로부터라는 것이 고금을 통한 진리이다. 무엇보다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들의 대다수가 직원들 월급 만들어 주기 바빠서 도저히 틈이 없는 건축사님들, 그리고 작품 외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건축사 면허가 있으신 어느 공무원께서 건축사들의 〈무관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건축 법안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라고 연락하면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다가 법안이 통과된 뒤에 뒤늦게 부랴부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히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예견되는데도 그 자리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관점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건축사들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현 주소인지 모르겠다. 그럼 건축사 문제를 누가 해결해줄까? 사회가 알아서? 건축주가? 시공자가? 물론 아무도 대신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건축사들 중 여건이 되는 분들은 시의원, 국회의원에도 대거 출마하고, TV에도 빈번하게 얼굴 내밀고, 신문에 칼럼도 열심히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 대해 작품 안 하고 엉뚱한 짓 한다고 뒤에서 비웃으면 안 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질수록 역동적이며, 그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그 조직에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건축 3단체가 합의하여 각 언론사에 공동명의로 건축물 소개기사에 건축사 이름을 명기해 줄 것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1년에 한번씩은 단체장들이 함께 손잡고 각 언론사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면 어떨까? 이런 일들이 번거롭기만 하고 도리어 건축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될까? 연속극에 종종 등장하는 〈설계사(?)〉라는 국적불명의 용어를 쓰는 방송작가에게도 협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점잖게 그 오류를 지적해주면 어떨까? "극중 인물 직업으로 〈건축사〉를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호칭은 건축가 혹은 건축사가 맞습니다"라고.

그러나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건축사 자신이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라고 본다. 물론 누구나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도 미래 언젠가 우리나라 건축사들 모두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날이 온다면, 앞에서 장황하게 언급한 문제들은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몇 년 후 5년제 건축대학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텐데, 그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여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선배 건축사들께서 기본 토양을 조금씩 만들어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유명한 퐁텐블로를 위하여 미켈란젤로를 초청하였을 때, 미켈란젤로는 적은 보수와 자신의 창조적인 작업을 프랑스와 1세가 보장하지 않음을 근거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작가로서의 〈자존심〉 아닐까? 하지만 설계비가 너무 적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만용(?)을 부릴 건축사가 우리 현실에서 몇이나 될까? 직원들 굶기려고 작정한 정신 나간 소장이거나, 재산이 많아서 월급걱정 안 해도 되는 분이겠죠. 직원들 월급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 일 것이다. 결국 설계비를 제대로 받아야 직원들 월급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 매년 인건비를 최소 물가인상률 만큼은 올려 주어야만 하는데, 설계비는 10년 전 그대로인 아이러니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열심히 공부한 제자가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받는 박봉에 분통이 터진다는 말씀에 끄덕이며 공감한 적이 있다. 지방에는 주택을 평당 2-3만원 받고 설계해주는 사무실도 많은데, 도대체 그 사무실 직원들은 얼마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 설계비 받은 만큼만 일해 주어야 할 테니, 도면은 또 얼마나 부실하게 될까? 이것은 경제의 원리이므로 누구도 그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실한 도면이 결국 전체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설계비 아낀(?) 것만 좋아하는 건축주가 우리 주변엔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치과의사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진료 중 간혹 형편없는 솜씨의 인공치아를 가진 환자를 보게 되면 조심스럽게 묻는다고 한다. 전에 어디서 치료를 받으셨나요? 질문 전에 분명히 무면허자들이 시술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혹시라도 동료 치과의사를 욕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확인이란다. 동료의식이겠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필자는 다른 분들의 설계를 깊은 생각 없이 매도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했던 적이 있다. 비판을 하더라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면서 얼마든지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당연히 건축사 사이에도 이런 〈동료의식〉이 필요하리라 본다.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동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건축사가 품위 있고, 자부심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제 3자 눈에 비쳐지지 않을까. 건축사들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동료를 높여줄 때 사회도 건축사들을 존중해주리라 믿는다.

건물이 다 지어질 3년 후에는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은 나아지리라 기대한다. 준공식에는 건축사가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작품소개와 그동안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그때쯤이면 기공식의 우울함은 잊혀지겠지요.

범산서원